

남원시, 친환경 농업 육성 총력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구축·유기질비료 지원 등 23개 사업에 65억6000만원 투입

남원시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23개 사업에 65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구축과 소득안전 및 안전농산물생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올해 유기질비료 지원에 41억8,0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10억1,000만원, 친환경 농자재 등 친환경농산물생산기반 조성에 8억5,000만원을 투입,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지력을 갖춘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7,214농가 223만7,000포(20kg/포))의 유기질비료 3종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을 영농기 이전인 적기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존하기 위해서는 올해 대산, 사매, 덕과, 보절, 산동, 이백, 향교, 도동 등 8개 면동 2,073농가에 규산질 3,792톤, 석회 984톤, 패화석 146톤이 공급할 예정이다.

1월 중에는 토양개량제 운영위원회를 개최, 공급 지역특성과 재배작물 상황을 고려 공급시기와 살포방법을 결정하고 규산질의 경우 공동살포를 통해 방치되는 물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교육 및 지도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소득안전 및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직불제지원에 1억9,000



남원시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23개 사업에 65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구축과 소득안전 및 안전농산물생산에 총력을 기울인다.

만원, 유기농업육성에 1억원, 우수농산물(GAP)확대 및 검사비 지원에 2억3,000만원, 또한 전국 소비처 확보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을 위한 2억원 등을 투입, 친환경 농업 선두 남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재 친환경인증농가 또는 향후 친환경인증농가로 등록하기 위한 농가들에게 친환경농법에 필요한 미생물이나 병해충관리자재 등을 지원 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자재 지원 및 생산기반 확대지원사업과 관내 퇴비공장의 악취민원방지를 위해 악취저감 약품지원사업 및 친환경 단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농기계 지원사업 등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시책사업도 추진한다.

김영선 원예산업과장은 "남원은 지리적 강점인 해발 70m의 평야부에서 해발 700m의 고랭지로 조성, 다양한 품목의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남원만의 독특한 지리적 강점을 살리는 다양한 품목의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육성과 안정적인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대를 '살고 싶은 남원, 잘사는 농촌' 조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저소득층에 상품권 지원

설 명절 앞두고 1억7900만원 투입해 취약계층 1309명에게 배부

임실군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민에게 재난지원금 임실사랑상품권을 편셋 지원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설명절 보내기가 더 힘든 주민들에게 1억7,900만원을 투입하여 임실사랑상품권을 배부한다.

대상은 지역 내 경제적 취약계층인 차상위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총 1,147가구 1,309명이다.

1세대당 1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되, 1세대에 지원 대상자가 2명일 경우 연 20만원, 3명 이상일 경우 연 2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29일까지 지급한다.

군은 저소득층 주민에게 지역상품권을 지원함으로써 생계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두 번의 명절에도 생활고에 시름하는 어려운 지역민을 위해 총 3억6,000여만원의 군비를 투입, 지원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들은 올해도 설과 추석 두 번의 명절에 걸쳐 세대당 연 30만원에서 50

만원의 상품권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임실군이 추진하는 저소득층 재난지원 상품권 지원사업은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12개 읍·면에 상품권을 교부하고,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품권을 배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올해 저소득층 복지향상과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효실행정을 추진, 민심 돌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어르신들이 보건과 복지, 문화, 여가 생활 등을 불편함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행복누리단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고, 고독사 고위험군 반찬지원사업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과 군민건강보험료 지원 등 민생 복지 강화에 더욱 힘써 나간다.

심민 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저소득층 상품권 지원을 통해 마음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꼼꼼하게 살피는 복지정책을 많이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이환주 남원시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이환주 남원시장이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을 응원하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고, 2021년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소망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시작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이 시장은 박준배 김제시장과 정중순 전남 장흥군수의 지명을 받아 동참하게 됐다.

이 시장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주민자치시대를 만들기 위해 남원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다음 참여자로 이 시장은 양회재 남원시의회 의장, 김승수 전주시장, 심민 임실군수를 지명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체육회, 32개 회원 종목단체 회장 선출

순창군체육회(회장 양영수)는 2021년도부터 32개 회원종목단체를 이끌어 갈 종목별 회장 선출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종목단체 회장 선출은 지난달 19일 순창군자전거연맹을 시작으로 올해 1월 중순까지 종목별로 선거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선출했다.

순창군검도회를 비롯한 19개 종목단체는 기존의 회장들이 연임되었고, 순창군골프협회를 비롯한 13개 종목단체는 새로운 인물이 회장으로 뽑혔다.

임기는 4년이지만 군 단위는 여건이 열악해 군 체육회 종목단체 규정에 의해 해당 종목 총회에서 2년 임기로 축소 의결도 가능하다. /순창=이양원 기자

황숙주 순창군수, 국가예산 확보 위한 발빠른 행보

기재부 실장급 간부 공무원 만나 현안사업 설명·관계 강화

황숙주 순창군수가 연초부터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지난 19일 기재정부 실장급 간부 공무원을 만나 순창군 현안사업과 지역 현안상황 등에 대해 설명하며 기재부 관계자와의 관계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황 군수는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 등을 오가며 종횡무진한 결과, 농촌협약사업 500억, 도시재생뉴딜사업 134억 등 굵직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일궈냈다.

이날 기재부 관계자와 만남에서는 국지도 55호선 4차로 확장사업, 섬진강 뉴딜사업, 달빛내륙철도 진행상황 등에 관련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지도 55호선 4차로 확장사업은 현재 군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863억원이 들어가는 대형 SOC사업으로, 매년 가을철이면 강천산으로 진입하려는 등산객들로 인해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어 순창군이 꼭 해결해야 하는 숙원사업 중 하나다.

이를 위해 황 군수를 비롯 관련 부서장도 관계 중앙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국지도 55호선 4차로 확장사업이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선 순위로 반영되어 연내 실시설계공역이 착수되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1,887억원 규모의 국도 21호선 시설개량사업을 예타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성공시킨 노하우를 살려 국지도 55호선 또한 꼭 성공시킨다는 각오다.

이외에 지난해 수해를 겪은 섬진강변 제방사업과 섬진강을 활용해 다양한 관광사업을 모색하고 있는 섬진강 뉴딜사업, 달빛내륙철도사업 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올해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국회, 중앙부처 등을 열심히 오가며 현안사업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 분위기를 예산확보를 통해 타개할 수 있도록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농기센터, 농기계 임대료 반값 인하 연장

임실군 농업기술센터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농가들의 인력 부담을 덜기 위한 농기계 임대료 반값 인하 정책을 새해에도 연장한다.

군에 따르면 농산물 소비둔화와 영농철 농촌 인력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기계 임대료 반값 인하 정책을 올해도 연장, 시행한다.

지난해에는 농기계임대사업소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22종 837대 전 기종에 대해 반값 임대료를 4월부터 12월까지 시행했다. 올해는 연말까지 시행할 계획인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증

추이에 따라 조정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해 임대 실적은 보면 농기계 이용 건수 8,986건, 임대료 1억534만원으로 3,419만7,000원의 농가 경영비 절감 효과가 있었다.

올해 추가되는 사업으로 화물차량이 없는 농업인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대농기계 운송을 시작한다.

농기계 사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임대농기계 예약(640-4513~8) 서비스를 이용하여 3일 전 예약을 하면 작업하고자 하는 시기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시민 생활불편 최소화 위한 대설 대응 총력

남원시가 제설제 보급 등으로 대설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민의 안전과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제설제 2,088포를 구입·보급한데 이어 지난 11일 추가로 1,900포를 구입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제설취약지역에 배부했고, 앞으로도 기상상황에 따라 제설제를 추가 배부할 계획이다.

앞서 남원시는 도로 제설과 관련해

시는 관내 57개 노선, 431.5km 구간에 미끄럼 방지포지판을 설치하고 제설모래 2만 개를 배치하기도 했다.

또한 시·군 경계 구간 및 국도와의 연계구간 제설에 적극 대비하고자 관련 기관 사전 협조체계를 구축, 대설 특보에 따른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대설특보 정보를 안내하고 있는 등 대설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